자멸을 재촉하는자들의 부질없는 객기

지난달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선반도지역에 전략핵무기를 전개하는 가장 로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감행한데 대하여 국방상담화로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전례없이 강력한 위협》이니 뭐니 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공화국을 걸고들다 못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떠들면서 대결광기를 부려댔다.

상전이 던져준 빈껍데기에 불과한 《워싱톤선언》과 과시적인 전략자산전개에 잔뜩 기고만장하여 설쳐대는 버마재비 같은것들의 자멸적객기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강화》와 미전략자산의 전개를 문서화한것이다.

미국이 윤석열역도를 끌어다놓고 《확장억제강화》이니, 《전략자산의 항시적전개》이니 하는것을 쪼아박은 《워싱톤선언》을 조작한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체질적이며 병적인 대조선압살야망의 발로인 동시에 허세성객기로 저들의 체면을 부지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혼맹이가 빠져버린 윤석열역적패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저들의 반공화국핵전쟁의 하수인으로, 세계제패야망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흉책에 따른것이다.

하기에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워싱톤선언〉이란 〈확장억제〉의 구실밑에 조선반도로 핵전략자산을 집중하고 전쟁연습구실을 만들기 위한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고 윤석열〈정부〉를 달래는 〈빈껍데기선언〉》이라고 평하고있다.

사실 미국이 과시적인 전략자산전개와 핵전쟁연습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저들의 지위를 부지하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그들자체가 날로 급부상하는 공화국의 절대적힘에 전률하여 자기의 존재여부에 대해 생각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의 하수인, 대포밥들의 운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력대로 미국은 자기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주구들, 하수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을 믿고 제 죽을줄도 모르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늙어빠져 무덤이 코앞인 상전에게 매달려 비루한 명줄을 부지하려고 바둥대는 특등주구의 어리석고 가소로운 광태가 아닐수 없다.

아직까지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설쳐대는 역적패당이 실로 가긍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역적패당의 볼썽사나운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비난하며 《북을 자극하는 경우 끔찍한 사태가 도래할것이다.》라고 경고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김정혁

대결미치광이들의 어리석은 광대극

윤석열역적패당이 정전협정체결 70년을 계기로 각종 반공화국대결행사판들을 벌려놓아 내외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역적패당은 정전협정체결 70년을 계기로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끌어들여 《기념식》을 한다, 훈패를 달아준다 하며 해괴하게 놀아댔다.

또한 미핵추진잠수함을 끌어들여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렸다.

그야말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는 산송장들의 어리석은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인류와 력사가 엄정하게 평가했듯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고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즐거운 려행》으로 묘사했던 조선전쟁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얻어맞고 녹아났는가 하는것은 몇가지 실례만 들어도 잘 알수 있다.

저들의 그림자만 보아도 줄행랑을 놓을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투입한 《스미스특공대》는 오산계선에서 불과 2시간만에 괴멸되였다. 《상승사단》이라던 미군 제24사단은 대전에서 완전포위섬멸되고 사단장 띤은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던 미국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도 조선인민군 해군의 어뢰정들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였고 《하늘의 제왕》이라며 내세웠던 《B-29》도 추풍락엽의 신세가 되였다.

조선전쟁은 《하나의 축복》이라면서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미국은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는 수치를 당해야만 하였다. 미국의 대포밥이 되여 조선전쟁의 돌격대로 나섰던 남조선괴뢰들이 당한 비참한 참패는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상대에 대한 잘못한 전쟁》,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명장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직된 전쟁》, 이것이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대참패한 미국이 지른 비명이였다.

그럼에도 역적패당은 지난 조선전쟁에 내몰렸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제명을 다 산 고용병늙다리들까지 끌어들여 각종 광대극들을 벌려놓고 미국상전과 저들이 당한 수치와 대참패를 그 무슨 《승전》으로 분칠하는 얼빠진 추태를 벌려놓은것이다. 세상에 이런 정신병자들, 인간추물들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들이 저들의 추태를 어떻게 평하겠는지 개의치 않고 혀바닥이 돌아가는대로 주절대고 망측한줄도 모르고 설쳐대는 역적패당이야말로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천하역적, 희대의 인간쓰레기들이다. 침략과 전쟁을 찬미하고 합리화하는것은 곧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침략과 살륙, 수치와 패배로 얼룩진 저들의 죄많은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반공화국전쟁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세인을 아연케 하는 역겨운 광대극들을 벌려놓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의와 진실을 모독하고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것을 생리로 하는자들, 전쟁과 대결에서 살길을 찾는자들의 본색과 정체만을 여실히 드러낼뿐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전쟁위기 높이는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전쟁위험 몰아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웨치며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파쑈독재로는 정의와 진실을 억누를수 없다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의 파쑈폭압통치에 반기를 드는 야당들과 로동운동단체들, 시민사회단체들을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전체주의세력》, 《부패한 집단》, 《가짜뉴스와 괴담》을 류포시키는 주범으로 몰아대면서 탄압말살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은 저들의 무지무능과 반역정치로 초래된 통치위기와 사회적혼란의 책임을 야당들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에게 넘겨씌우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을 약화시키며 집권안정을 이루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의 사대매국과 검찰파쑈통치, 친재벌적이며 반로동적, 반인민적정책, 극악한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에 의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사회적혼란과 파국은 극도로 가중되고있다. 최근에만 해도 물가와 공공료금이 걷잡을수 없이 뛰여올라 남조선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는 속에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사상자와 리재민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주민들이 당하는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해외를 싸다니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데 열을 올리였다. 또한 남조선의 전 지역이 폭우피해로 아수라장이 되고있는 속에 역도의 녀편네가 해외에서 명품상점을 들락거린 사실이 폭로되고 역도의 처가족속들의 권력형부정부패의혹까지 터져나와 내외를 경악케 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반인민적행위는 남조선 각계의 반윤석열, 반《정부》기운을 더욱 고조시켰다.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깡패, 검찰독재 윤석열 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 《부패비리 사대매국 윤석열〈정권〉 갈아엎자!》,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남조선 각계의 거세찬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으로 막다른 통치위기에 직면하자 역도와 그 패당은 민주개혁세력을 《반국가세력》, 《저들의 리권만 생각하는 부패한 집단》, 《가짜뉴스와 괴담》을 내돌리는 주범으로 몰아대면서 윤석열《정권》퇴진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 민주개혁세력을 탄압말살하려고 발광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정의를 짓밟고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극악한 민주, 인권의 교살자, 희세의 파쑈광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윤석열〈정권〉이야말로 주민들을 저해하는 반국가세력이다》, 《못살겠다, 윤석열퇴진에 로동자, 농민, 시민의 살길이 있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정부》, 반윤석열투쟁에 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력사는 파쑈독재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운명도 결코 달리 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혜성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최근 윤석열역도가 그 무슨 《공직기강확립》놀음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역도는 《국정운영》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자들은 엄단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가차없이 칼질을 해대고있다.

지난 5월 자기의 《탈원전정책》폐기공약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교체한것을 비롯하여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관료들을 현직에서 쫓아낸데 이어 6월에는 11개 부서의 차관 12명을, 7월에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일부 주요인물들을 교체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역도의 이러한 《공직기강확립》놀음은 기강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대통령실》과 행정부에 남아있는 반윤석열세력을 모두 제거해버려 자기의 독선과 전횡,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로골적인 정치탄압이다.

실제로 역도의 《공직기강확립》놀음에 의해 쫓겨난자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 출신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있던 자리들에는 역도에게 아부굴종하는자들이 올라앉았다.

역도는 자기의 대내외정책추진에 장애로 되는자들을 가차없이 떼버리고 행정부의 고위직에 심복들을 올려앉히는 한편 《대통령실》을 내세워 행정부것들을 감독통제하고 공직감찰력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로 하여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 극도로 불안해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역도의 《공직기강확립》놀음에 대해 공무원들의 목줄틀어쥐기, 공직사회길들이기, 측근올려앉히기, 공직사회압박전략으로 비난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검찰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제명을 다 산 인간추물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역도는 이미 남조선민심의 버림을 받았다. 남조선 각계가 《윤석열퇴진!》, 《윤석열〈정권〉을 갈아엎자!》는 구호를 들고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역도에게 남은것이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폭력이 란무하는 교정

《잔혹하다. 고등학생들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것은 례사로운 일이고 마치 고문이라도 하듯 뜨겁게 달궈진 고대(머리모양을 낼 때 쓰는 전기제품)와 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살갗을 문드러지게 한다. 피해자는 온몸에 화상자국과 멍이 남았고 나이들어도 그 자국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은건 마음에 새겨진 상처이다. …》

이것은 남조선의 어느한 언론이 학교폭력문제를 소재로 하여 만든 TV련속극에 대하여 평한 글이다.

문제는 이 TV련속극의 소재가 작가의 머리속에서 고안된 창작적허구가 아니라 지난 2006년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청주의 어느한 녀자중학교에서 벌어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한것이라는데 있다.

일명 《고대사건》으로 알려진 이 학교폭력사건은 여러명의 녀학생들이 20일에 걸쳐 한 녀학생을 흉기로 폭행하여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한 범죄사건이다.

남조선에서는 교정에서 공공연히 감행되는 이러한 폭력행위로 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데 의하더라도 2020년에 8 300여건이였던 학교폭력사건은 2021년에는 1만 5 600여건으로 늘어났고 2022년 상반년에는 9 700건에 달하였다.

더욱 심각한것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빈곤층자녀들이고 가해자들은 례외없이 특권층이나 대기업가들의 자식들이라는데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비단 학생들사이에서만 발생하는것이 아니다.

얼마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학생이 자기를 배워주는 교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상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수업도중 교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임명된지 2년도 안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학생들이 교원들을 불손하게 대하다 못해 학부형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은 최근 5년간 1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

이것은 교권을 마구 침해당하고도 항변 한마디 할수 없는 남조선교원들의 울부짖음이다.

학생들이 자기를 배워주는 교원들을 존경할 대신 돈과 권세있는 부모들을 등대고 교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런 교정에서 어떻게 고상한 도덕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자라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신성한 교정이 부패와 폭력이 란무하는 범죄의 서식장으로 전변된것은 위정자들의 반인민적정치, 부패정치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역도가 추진하고있는 《교육개혁》놀음도 교육분야에서 부익부, 빈익빈만을 초래하고 《등록금대란》을 불러오는 개혁 아닌 개악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교육개혁》놀음에 대해 《학생들을 무차별적인 경쟁에로 내몰아 자살자들만 늘어나게 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사교육을 더욱 성행하게 만드는 개악놀음》이라고 비난배격하고있다.

윤석열역도와 같은 시정배들이 판을 치고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학교폭력은 언제 가도 근절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광혁

허울은 벗겨졌다 《공정과 상식》의

얼마전 남조선의 《법원》이 은행증명서위조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재판정에서 즉시 《법정구속》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기세등등하여 재판정에 나섰던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은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질겁하여 무슨 말인지 리해가 잘 안된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느니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졸도하여 들리워나갔으며 변호인단것들은 뻐꾹소리 한마디 못하고 황황히 사라졌다고 한다.

윤석열역도의 장모년은 일찌기 술과 도박, 매춘,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것으로 하여 6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1년 5월에는 불법료양병원개설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온 상습적인 전과자이다.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건은 그가 저지른 죄악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윤석열이 장모에 대해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를 준것이 없다.》고 한것은 거짓말이라는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립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들이대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녀편네 김건희와 장모년이 주가조작의혹과 부동산투기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로선변경의혹 등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에 련루되여있는데 대해 크게 여론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의 처가집은 처음이다, 윤석열의 처가집은 악질적인 사기범죄로부터 전형적인 권력형부정부패까지 총망라된 종합범죄집단이라고 단죄하고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특권독점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의 처가집이다, 장모의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김건희일가의 《국정》롱단의혹을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떠들어댔지만 집권하여 오늘까지 170여가지나 되는 제 가족의 부정부패혐의는 모두 덮어버리고 대부분 협의가 없다고 하였다.

《법치》와 《공정》, 《청렴》의 허울뒤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윤석열역도와 그 일가족속들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범죄왕초들이다.

이런자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썩고 병든 세상이다.

본사기자 박진홍